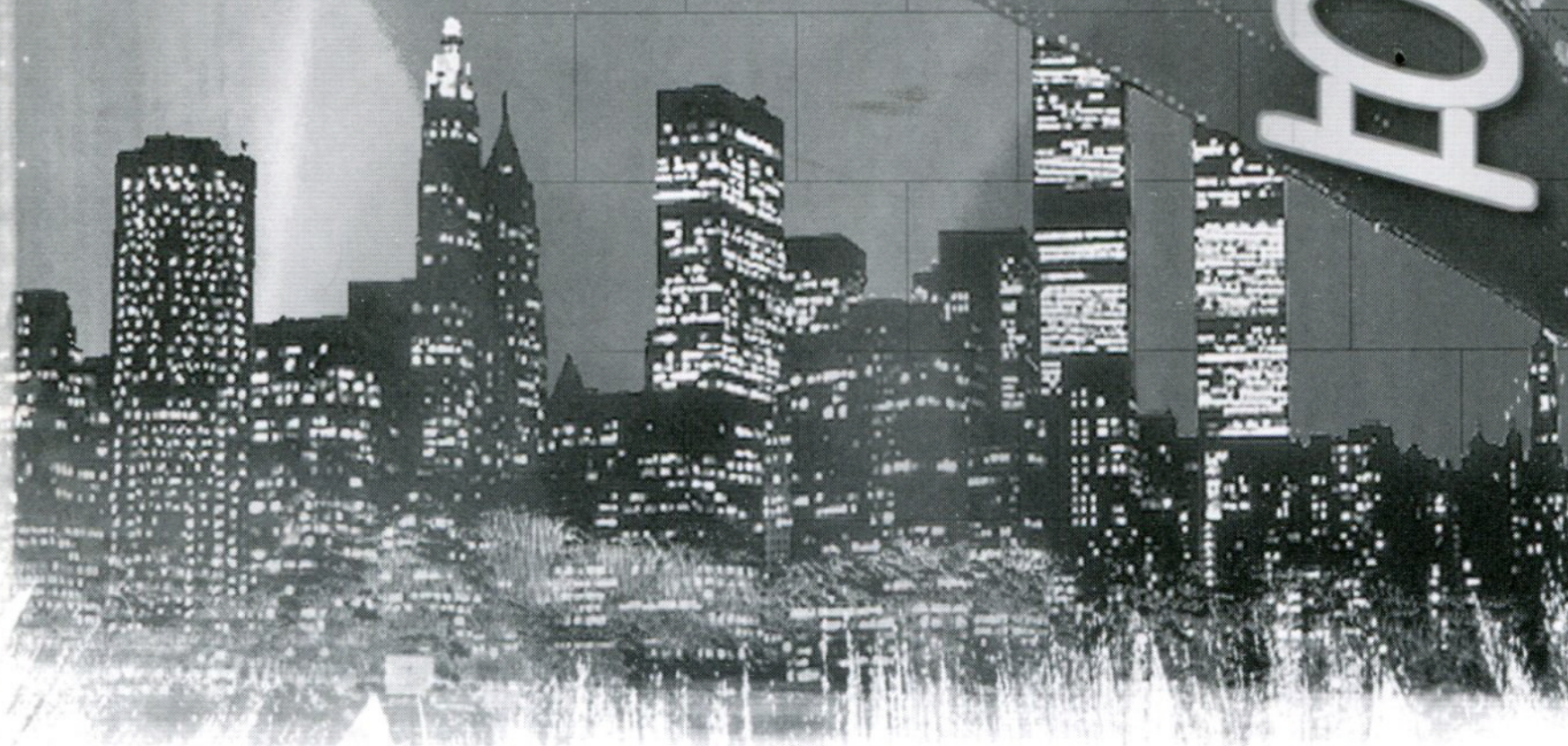


극단 SAY 제18회 정기공연

계도적 사랑과
본능적 사랑의 교뇌

계도적 사랑과
본능적 사랑의
교뇌



복 쫓겨주세요

작/이 만 희
연출/허 영 길

사내/최 시 영주대
여인/구 민 경대
남분/주 경 선미
여분/박 선 건림
남多/김 선 대광
여多/진 광 림

기획/김 만 중
미술/조 석 진지
진행/이 석 학지
음향/장 화 영
조명/조 혜 미 라

일 시 : 1998년 7월 23일(木) ~ 8월 23일(日) ● 월요일 공연없음

평 일 7시30분

토 요 일 4시, 7시, 11시(심야공연)

일,공휴일 4시, 7시

장 소 : 광안리 에저또 바다 소극장 (구 Say 소극장)

작가 의도

작가/이 만희

연출가나 배우나 작가나 '획기적인 작품'에 대한 매력을 떨칠 수가 없다. 기발한 착상으로 관객을 매료시킬 수 있는 작품을 분명코 우린 염원하고 있다. '불 좀 꺼주세요'도 이런식의 접근으로 출발이 되었다. 몇 년 전 몇몇 친하게 지내던 연극인과의 술자리에서 구태의연함에 서 벗어나는 '분갈이용 연극'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그 동안 적잖은 토론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발한 착상이란 기발한 감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무대에 펼치게 되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왔다. 그 후 고민 끝에 얻어낸 결론이 분신의 등장이었다. 여기서 분신은 속모습의 '나'일수도 있고 연상장면 속의 타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린 버스를 타고 가면서 혼자서 술한 대화와 연상과 의문과 계산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정신적 사랑을 운운하면서도 속으론 육체적 사랑을 탐하기도 하고 청빈락도를 외치면서도 부에 대한 동경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범인들은 대부분 그렇다. 난 분신을 통하여 그러한 모습과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본능적 욕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려 했다. 제도적 삶이 현대인이 자아상실을 뜻한다면 본능적 삶은 현대인이 희구하는 순진무구한 동물의 모습이겠기에, 우린 너무도 동물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 작품의 형식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하다. 난 그것을 동양적 사유나 내재적인 어법으로 정리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의 내용의 주제가 '제도와 본능'이라면 형식의 주제는 '혼동과 정리'가 된다.

욕심부러 애길하자면 난 이작품에서 다양한 '존재극'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내고 싶었다.

작 품 줄 거 리



기획/김 만중

첫 사랑을 못잊어하는 중년 남성의 사랑얘기다. 그들은 젊은 시절 강원도 산골짜기 국민학교에서 여자는 학교 선생님이요 사내는 학교 농장의 일꾼으로 만나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되지만 거렁뱅이 신세인 자신에 비해 상대가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한 사내가 어느날 그녀 곁을 떠나고 만다. 그 후 여자는 사내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다가 사내의 친구한테 발목을 잡히게 되고, 사내는 공사판 잡부로 전전하다가 어느 부잣집 여대생과 곡절 끝에 결혼하게 된다.

그로부터 10년 뒤, 여자의 남편은 패륜아로 전락하여 그녀 곁을 떠나고 그녀는 홀로의 몸이 되어 평범한 아낙으로 살아간다. 한편 사내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승승장구하여 세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된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둘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랑해선 안될 사이다. 한쪽은 친구의 부인이요, 한쪽 역시 결혼한 몸이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간격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무대는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작업실겸 아파트. 사내가 여자의 집을 찾은데서 작품이 시작된다. 사내는 그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내세워 의원직을 사퇴하겠노라고 공포한다. 그날밤 둘은 여러 얘기를 나눈다. 제도적 사랑과 본능적 사랑과의 의미, 역사와 일상의 차이점, 둘을 막고 있는 벽 등. 아마추어 시인인 그녀는 둘의 대화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사내가 요구하는 분갈이에 응하게 된다. 그녀는 사내에게서 '시 한편 쓰지 않는 시인'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삶의 역사성을 깨우친다. 초목의 자리에서 움돋이가 시작되듯 새로운 삶의 역사가 창출되는 것이다.

연출의 변

관객에게 재미를.....



연출/허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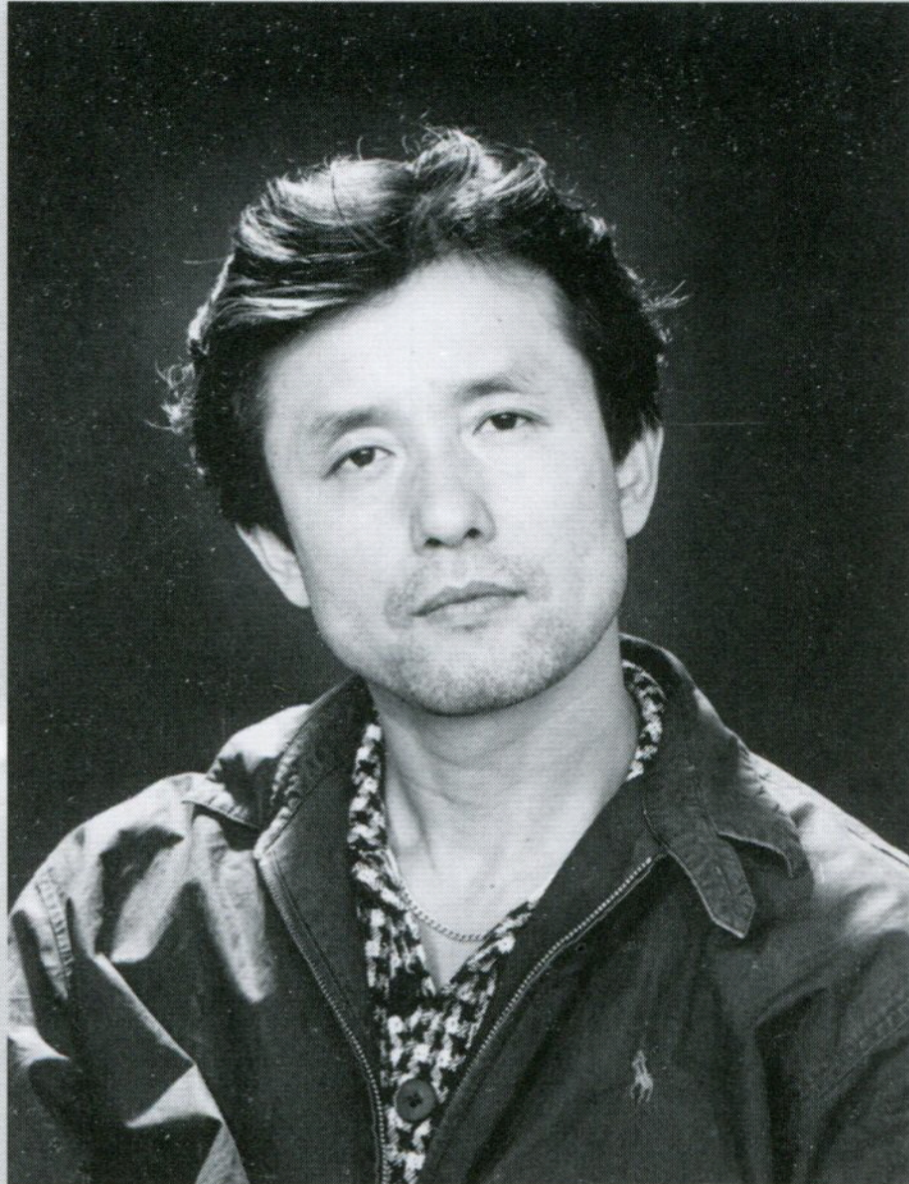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또 다시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관객앞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포장을 뜯습니다.
관객들과 만난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두려운 과정입니다. 비록 무대에 직접 올라가지는 않지만 항상 배우들과 같이 무대위에서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아쉬웠던 월드컵 16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배우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연극 '불 좀 꺼주세요'를 조심스럽게 무대에 올립니다.

이 작품은 중심인물인 사내와 여인보다는 그들의 분신인 두명의 분신역, 그리고 두 사람 주변의 모든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남,여 多역을 위한 연극이다.
주변의 사내와 여인이 삶의 깊이를 가지고 무대의 중심을 지켜주는 가운데 남자분신과 여자분신은 감춰진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며 무대위를 휘젓게 된다.
그리고 일인 다역을 수행하는 남자 多역과 여자 多역은 변화무쌍한 연기로써 관객에게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

한 공간의 무대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공유하는 배우들의 변화에 의한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작품 '불 좀 꺼주세요'가 가지는 무대화의 매력이며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진지한 주제의식을 재미라는 연극적인 양식으로 풀어간다.
우리 사회의 모순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요소요소에 코믹하고 맛깔나는 언어를 적절하게 용해시켜 탄력있는 무대를 이끌 수 있게 한다.

난해하거나 설익은 관념을 주절주절 무대위에 늘어놓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은 사랑이야기를 중심 스토리로 구성, 보편성을 획득하였다.
그것은 잊혀진 사람을 기억나게 하고 어머니와 가족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주며한때의 꿈과는 너무나 멀어진 현실과 제도로부터의 자아찾기를 보여준다.

주인공의 분신이 등장, 주인공의 이중성을 낱낱이 풀어내고 있다. 관객들은 분신들과 함께 상상력의 정거장에 있는 자기를 발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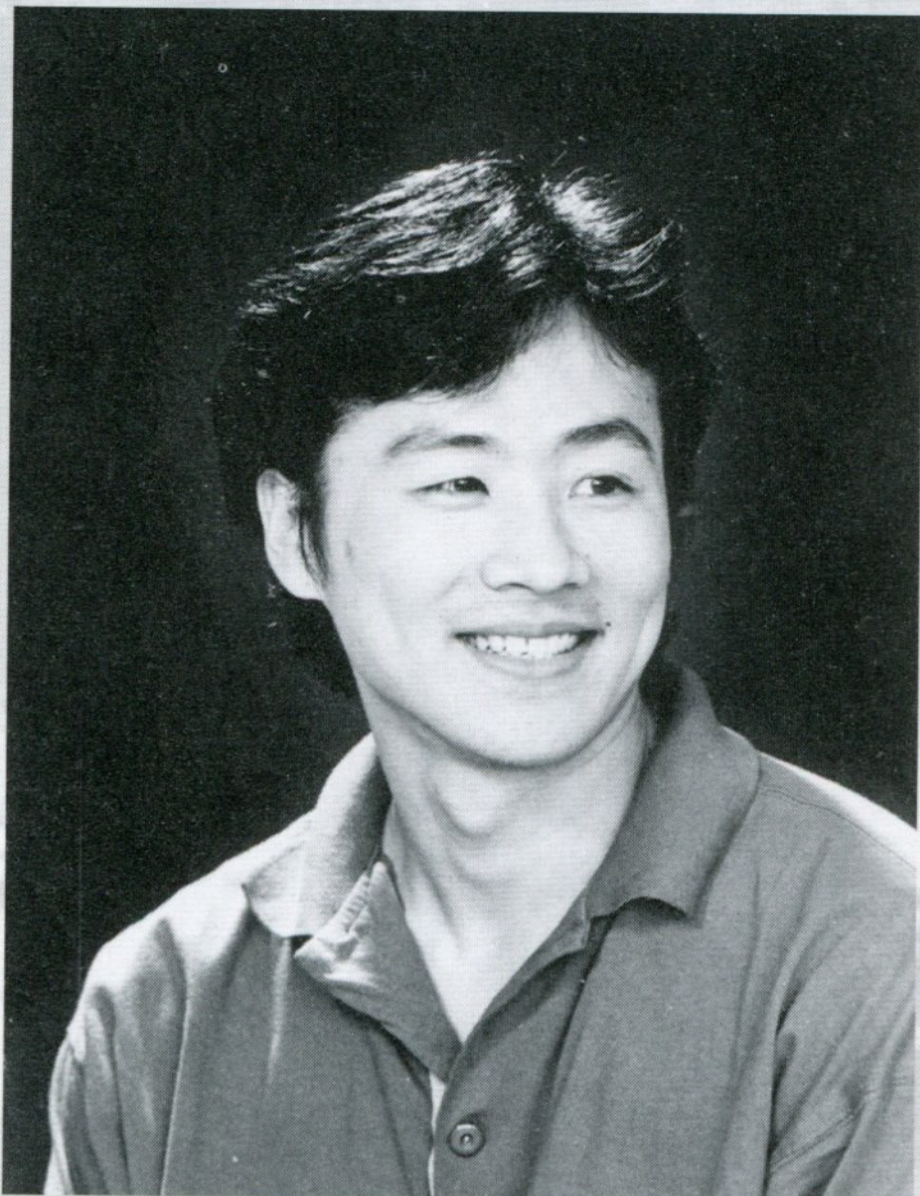
사내 / 최 시영

- 무엇이 될꼬하니
- 동리자전
- 보잉보잉
- 남자는 남자다
- 그 여자의 숲속에는...
外 다수



여인 / 구 민주

- 돌아서서 떠나라
- 메카로 가는 길
- 이혼의 조건
- 날 보러와요
- 그 女子 이름은 이순례
外 다수



남 분신 / 주 경대

- 호모세파라투스
- 마술가게
- 남자는 남자다
- 그 여자의 숲속에는...
- 고도를 기다리며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여 분신 / 진 광림

- 데뷔



남 다역 / 김 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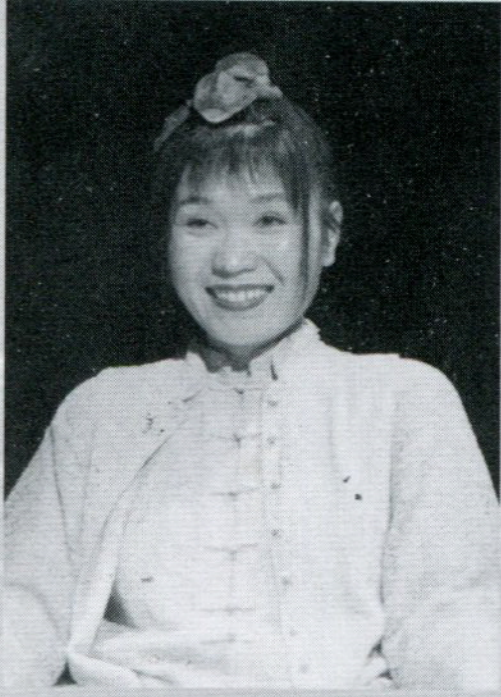
- 면역환자
- 어머니
- 스트립 티스
- 날 보러와요
- 꽃잎져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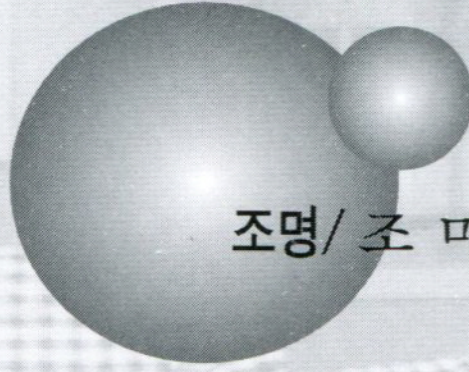
여 다역 / 박 선미

-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 그 여자의 소설

스텝



진행/ 이 화진



조명/ 조 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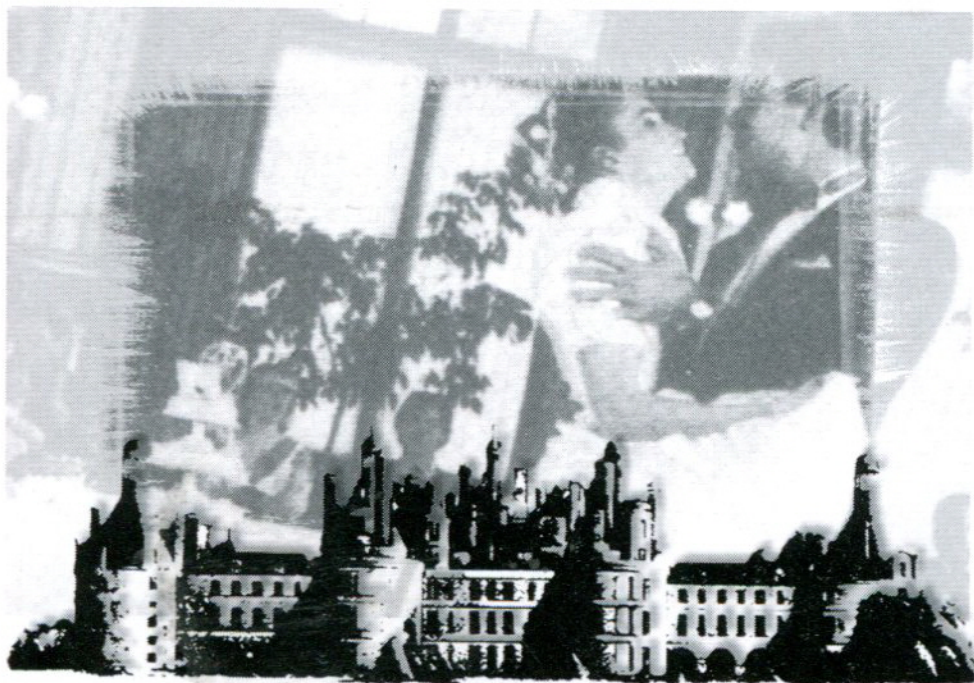
미술/ 조 석진



미술/ 김 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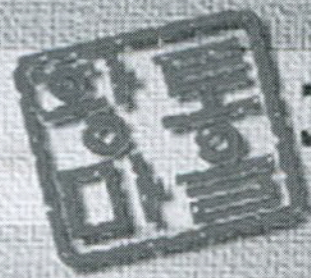


음향/ 장 혜영



로마의 휴일

626-9321



황토방 마을

황토주와

이물나무술

해장국 24시간영업

TEL.626-7171

모시는 글

대표 김만중



극단 사계가 2004년 7월8일
공간소극장을 개관하고 공연을 시작하여
그 힘들었던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래전 부터 공감을 맞춰왔던
허영길 선생님과 이만희 선생님의 조합으로
관객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모진 고생을 참아가며 묵묵히 일하고 공연해준
모든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저희 사계와 공간소극장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과 회원여러분,
항상 주변에서 저희를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연극동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그리고 더 먼 훗날까지
항상 관객여러분께 감동을 전하는 극단과
극장으로 남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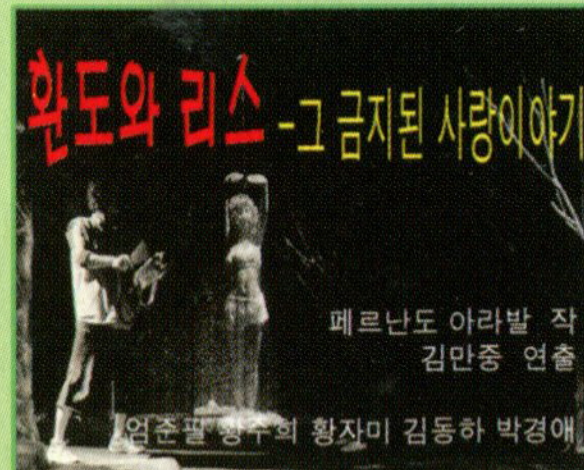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이 되기를

연출 허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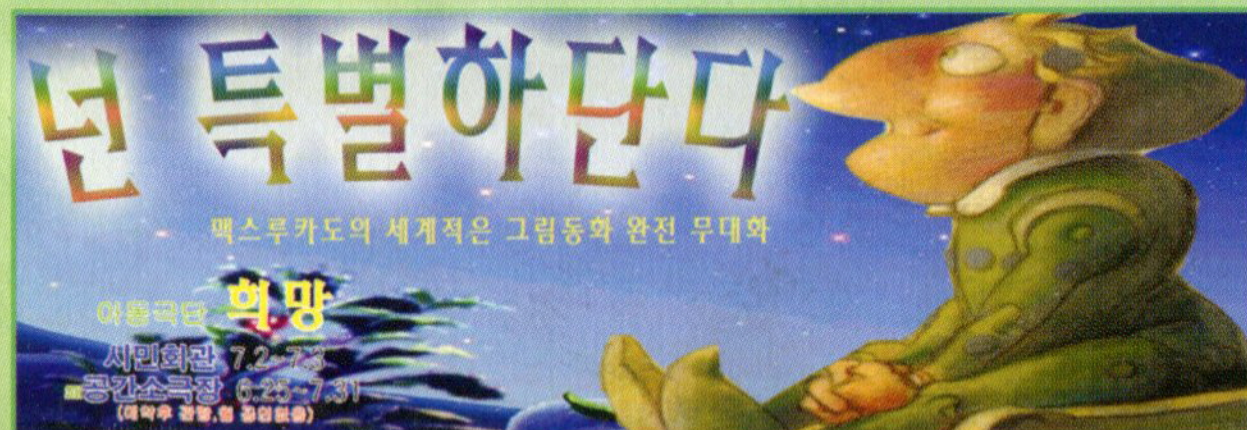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원하고 거칠어지고
그저 빠르게 빠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세대와
조금은 안정되고 느끼고 싶어하는 기성세대들을
모두 즐겁게 하기위해선 무엇을 해야될까.
그 해답을 이만희씨의 희곡에서 찾았습니다.
인생을 관조하면서도 반역을 꿈꾸고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강렬한 비트가 숨어있는 연극
거기에 내 나이가 되어서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참맛과
우리 젊은 단원들이 자아내는 경쾌함을 조합시킨다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극이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객들앞에
그 결과물을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에 삶의 작은 활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차기공연



공간소극장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앵콜공연
2005년 7월 8일 ~ 8월 7일

2004년 7월 8일
공간소극장 개관기념으로 올려져 화제가 되었던
환도와 리스 그 금지된 사랑이야기를
1년이 되는 시점인 2005년 7월 8일
특별 앵콜공연으로 한달간 펼쳐집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도와 리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2005년 극단 사계가 드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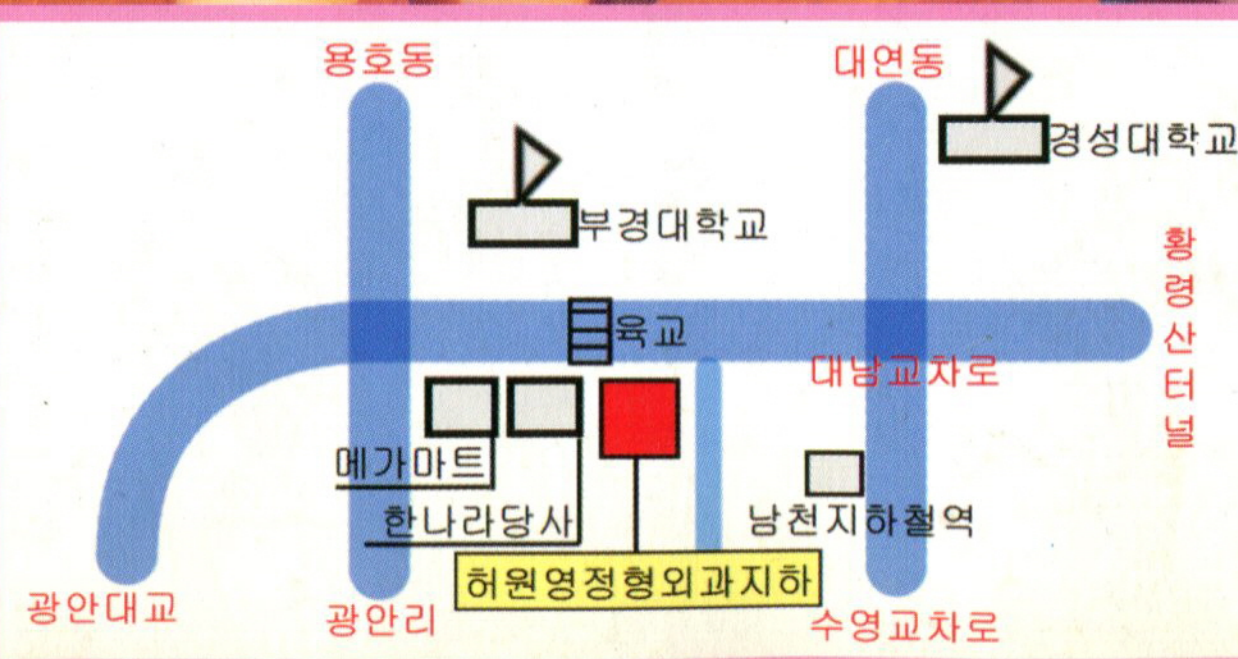
즐거움 연극 시리즈 2탄

그 즐거움과 감동을 찾아가십시오



예매문의 611-8518
다음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cafe.daum.net/say012
www.shgonggan.com

버스 20 38 40 41 42 51(-1) 83(-1) 106 108(-1) 109 131(-1) 139 140 139 240 302
- 대남교차로역하차
지하철 2호선 남천역 3번출구



봄
좀
겨주세요

극단 사계 36회 정기공연
2005 무대지원사업 선정작품 / 2005사랑의티켓 참가작

작가 이만희

연출 허영길

호민 구민주 엄준필 황자미 강병진 박경애



SH 공간소극장

2005년 5월 17일(화) ~ 6월 19일(일)

평일 7시30분 / 주말 6시*월요일 공연 없음

2005 즐거운연극 시리즈 2탄

극단 사계가 2005년 보여드리는 즐거운 연극 시리즈 2탄
<불 줌 꺼주세요>

<겨울 바다 살인 교향곡>에 이은 감동과 즐거움의 무대를 펼쳐드립니다.
영화 <약속>의 작가 이만희의 완벽한 희곡의 감동과
극단 사계의 신나고 즐거운 무대연출이 빚어내는 상상들의 연극.
극장에 오시는 순간부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벤트의 즐거움.
그 즐거움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004년 다시 보고 싶은 연극 1위

1994년 국내 소극장 최다관객동원을 기록하며
한국 연극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불 줌 꺼주세요>
2004년 지난 10년간 다시보고싶은 연극 10편에 선정되어 관객몰이를 하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작품성을 관객이 인정한 작품.
그 역사의 순간을 공간소극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중년의 신선한 반란

사랑했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
이 작품은 제도적 사랑과 본능적 사랑의 경계에서 갈등하는 중년의 고뇌를
분신이라는 연극적 인물을 등장시켜 관객에게 보여준다.
인간적 순수함과 사회적 인간과의 사이에서 있는 우리들은
항상 사회적 인간이 되기를 강요받는다.
하지만 사회적 인간만이 정말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답인가.
이 작품은 관객들에게 사회와는 동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한번쯤은 거기에 반항하고픈 인간에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이루지 못한 첫사랑의 이야기

그들은 젊은 시절 산골 초등학교에서 학교선생님과 농장 일꾼으로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암울한 과거를 감추고 살던 사내는 불현듯 여인 곁을 떠나고 만다.
여인은 사내를 수소문 하던 중 그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사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여인은 사내의 친구 아내가 되어 만난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둘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랑해선 안될 사이다.
한쪽은 친구의 부인이요 한쪽 역시 결혼한 몸이다.
그래서 어정쩡한 간격을 두고 있기도 하다.
무대는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작업실 겸 아파트.
사내는 그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내세워
의원직을 사퇴하겠노라고 공포한다.
그날 밤 둘은 여러 얘기를 나눈다.
제도적 사랑과 본능적 사랑과의 의미, 역사와 일상의 차이점,
둘을 막고 있는 벽 등.
그녀는 둘의 대화에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사내가 요구하는 분갈이에 응하게 된다.
초목의 자리에서 움돋이가 시작되듯 새로운 삶의 역사가 창출된다.

후원 : 현대백화점 SK주유소 롯데카드 다우사진학원 허원영정형외과

함께 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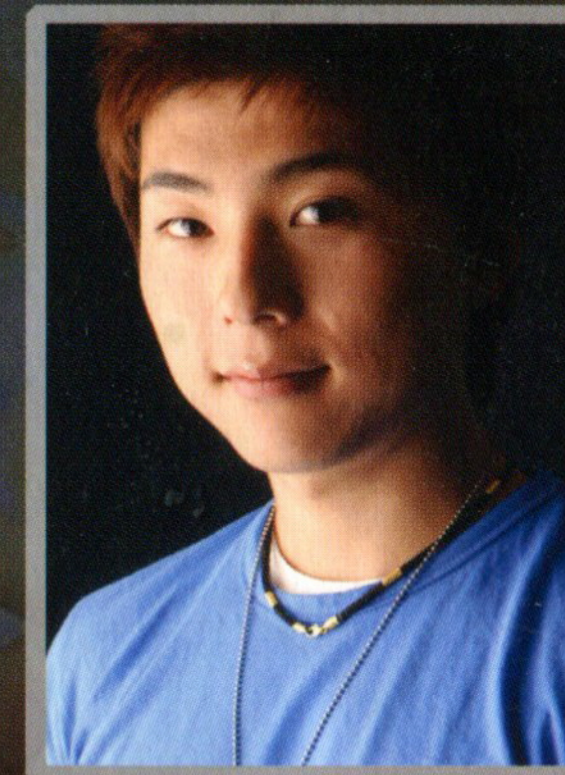
강창영 役
호 민

극단 아센 상임연출
cafe.daum.net/acen2000



박정숙 役
구민주

극단 아센 대표
cafe.daum.net/acen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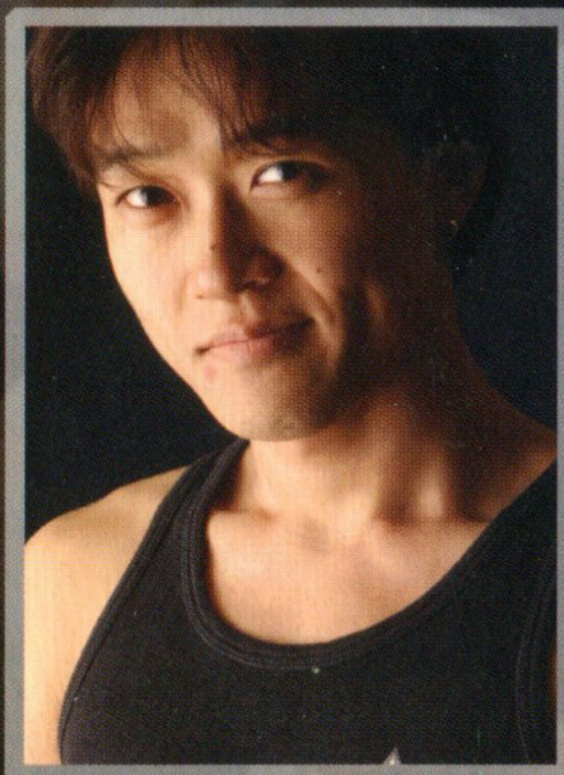
남자 多 役
강병진

극단 에저토 단원
cafe.daum.net/ezotto



여자 多 役
박영애

극단 사계 단원
cafe.daum.net/say012



사내 분신 役
엄준필

극단 사계 단원
cafe.daum.net/say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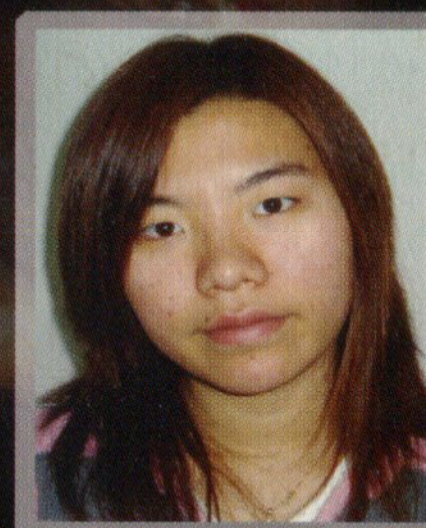


여인 분신 役
황자미

극단 사계 단원
cafe.daum.net/say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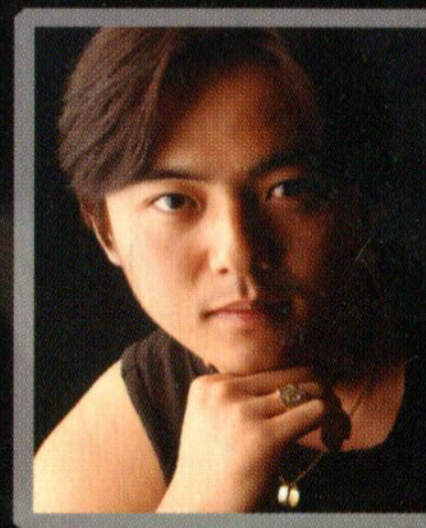
기획 전상배



무대감독 진해원



음향 황주희



진행 송준승